

# ‘무등산 효과’ 광주 비만 전국 최저

‘지역사회건강조사’ … 도심 등반로·산책로 많아 걷기운동 원인

광주지역민들의 비만율이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. 전문가들은 지역민들이 도심 내 무등산 등 풍부한 녹지를 등반하거나 산책 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. 이를 바 ‘무등산 효과’다.

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‘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’를 실시한 결과 광주는 비만비율이 20.1%로 가장 비율이 높은 강원도(26.3%)보다 5% 이상 낮았다 고 18일 밝혔다.

전남 지역민 역시 21.3%로 비교적 낮은 비만 비율을 보였다. 광주와 전남은 걷기운동 실천율(30분 이상 걸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이상

인 사람의 비율)에서도 각각 50.1%, 61.3%로 상위권을 차지해 낮은 비만율의 원인은 ‘걷기 운동’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.

광주지역 조사를 맡은 유소연(43) 조선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“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지표가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,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과제”라며 “광주가 무등산 외에 각 자치구마다의 등산로 등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
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지역민들의 걷기 실천율이 가장 높은 곳은

남구(60.7%)였으며, 그 뒤를 서구(55.7%), 동구(50.6%), 광산구(50.0%) 등이 뒤를 이었다. 북구는 41.5%로 가장 낮았다.

월간 음주율의 경우 광주는 55.4%로 전국 16개 시도 중 중위권을 기록했으나, 지난 2008년 51.2%보다 4.2% 증가했다. 또 흡연율은 22.5%로 전북과 함께 가장 낮았으며, 지난 2008년 21.5%보다 소폭 감소 했다. 전남은 월간 음주율이 53.4%, 흡연율은 24.6%였다.

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광주·전남지역 각 보건소 별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, 조사는 흡연·음주·신체활동·비만 등 ‘건강 행태 1’, 구강건강·정신건강·안전의식 등 ‘건강 행태 2’ 등으로 분류해 이뤄졌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다. 월간 음주율은 북구 58.3%로 가장 높은 반면 서구는 50.1%로 가장 낮았다.

이처럼 광주·전남지역민들의 월간 음주율이나 흡연율이 낮은 이유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전남의 경우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22.8%를, 광주는 중하위권인 28.4%를 보였다.

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광주·전남지역 각 보건소 별로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, 조사는 흡연·음주·신체활동·비만 등 ‘건강 행태 1’, 구강건강·정신건강·안전의식 등 ‘건강 행태 2’ 등으로 분류해 이뤄졌다.



광주 ‘한나센터’ 출범

광주 하나센터 출범식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여성발전센터에서 광주·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
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## 지자체·교육청 감사기구 독립 운영

장태평 농림장관 來道

7월부터 … 책임자는 외부 전문가 임용



장태평 농림장관  
수산식품부장관  
이 19~20일 전  
남을 찾는다.

장 장관은 19  
일 여수시 여자  
만 세교당 양식  
장을 찾아 어업  
인들을 격려하고 전남에 여수캠퍼스  
에서 수산업 경영인 500여명을 대상  
으로 강연할 계획이다.

20일에는 광양 청마실농원과 구례  
야생화농원, 화순 파프리카 재배 현  
장을 둘러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 
강연한 뒤 상경한다.

/김재우 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오는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 단체,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의무화돼 감사운영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.

정부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”이라며 “이 법은 국가 감사체계가 획기적으

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

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  
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. 이 법의  
시행에 따라 그동안 ‘비리의 온상’으로  
지목돼온 자체체와 각 시·도 교육청 감  
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.

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  
의 임기를 보장받으며, 내·외부 기관  
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 
관련 문서·물품의 강제봉인을 할 수

있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.

또 감사원 스스로 자체 감사책임  
자인 ‘감찰관’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,  
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.

/연합뉴스

광양경제자유구역청장

최종만씨 내정



최종만 전  
주사 행정부서  
장(54)이 제3대  
광양만권경제자  
유구역 청장에  
내정됐다.

전남도는 최  
근 총중인 광  
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 
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최종만 전  
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임기 3년의 광양  
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임용했  
다고 18일 밝혔다.

순천 출신인 최 청장은 지난 1978  
년 2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  
문한후 광주 동구청장 등을 역임했  
다.

/장필수기자 bungy@

## ‘피의사실 공표’ 7년이하 징역형

### 한나라, 상향 추진

한나라당은 18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정형을 ‘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’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키로 했다.

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(위원장 이주영 의원)는 이날 국회에서 전 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검찰분야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.

특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전달하게 되며, 법무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.

/연합뉴스

기로 했다”고 밝혔다.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 법정형은 현행 ‘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’에서 ‘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’로 조정된다.

한나라당은 또 검찰청법 23조를 개정,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염격히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.

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권 오·남용 방지대책과 관련, ▲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청구 금지 ▲영장집행 압수 대상과 범위의 엄격한 제한 ▲압수물 조기반환 의무화 ▲피압수자의 압수수색물건 반환신청 및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담아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.

/연합뉴스

## 저소득·농어촌 자녀 전원무상 급식

당정, 2012년부터

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  
지 농촌과 어촌, 산촌, 그리고 도시 저  
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  
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  
시키로 했다. 당정은 또 오는 2015년  
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

서민의 0~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  
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  
을 검토키로 했다.

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 
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  
장,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, 이주  
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, 이웅걸 기  
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

이같이 의견을 모았다. 조해진 대변  
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“당정은  
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, 산촌  
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, 그  
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·  
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 
지원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 
자체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  
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 
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”

/연합뉴스

현재 97만명에서 2012년까지 200만명  
까지 확대할 예정이며, 소요 예산은 매  
년 4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.

또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 지원은 소  
득분위 하위 70% 까지로 확대키로 하  
는 등 대상자를 대폭 늘렸다. 이 방안이  
시행되면 한 해 각 6천억 원, 4천억  
원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됐다.

당정은 이에 따라 대폭 늘어난 재  
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 
자체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  
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 
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/연합뉴스

## 간통제 폐지·사형제 존치

### 법무부·특위 가닥

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  
정특별분과위원회(위원장 이재상)이  
화여래 석좌교수)가 성적(性的) 자기  
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위원  
논란을 빚어온 형법상 간통죄 조항을  
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.

18일 법무부와 특위에 따르면 간통  
죄,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‘개인적 법  
의’ 규정의 개정 여부를 접두 논의하는  
특위 제3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 
께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 
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표결한  
끝에 폐지 의견으로 정리했다. 특위

전체회의에서도 최근 표결을 통해 간  
통죄 조항은 폐지키로 결정했다.

특위 관계자는 “비록 자문기구이  
지만 특위의 의견이 법무부의 의견이  
될 것”이라며 “법무부는 공청회를 거  
쳐 5월께 시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 
안다”고 밝혔다.

특위는 또 형법상 형벌의 종류로서  
사형은 개정법에서도 존치키로 결정  
했다.

특위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 
조항과 관련한 의견을 정해 법무부에  
전달하게 되며, 법무부는 여론 수렴  
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.

/연합뉴스

### 최고급 전원주택 매매

#### (최고급 건축자재 사용)

##### ● 위 치 ●

화순군 전대면 미현리 8번지  
광주에서 10층 기관 8평선으로 백화점  
도보로 전대면 관의시설 이용가능  
민박신. 무통신 지역에 위치하여 등산, 산책  
로 이용이 편리하고 공기하고 편안한 천왕봉  
를 천왕봉입니다. 토지 흙바탕 100평 사용하  
고 습도조절, 들판조절이 되어 수면후  
만성피로 회복, 미주 좋고 주변이 적성으로  
건강을 생각하여 경성면에 젖은 집입니다.  
(의사, 번화사, 교수, 퇴직자 회복)

##### ● 투자용 펜션 용지 ●

• 150~300평  
: 평당 50~100만원  
- 해수욕장 주변으로 배산입수  
를 갖춘 비단과 보이는 전망 좋은  
곳으로 투자 적합.

##### ●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●

• 150~300평  
: 평당 25만~35만원  
- 새만금 밀집지역을 탈피  
하고 한기로운 전원 주택지  
를 찾는 수요가 날로 증가하  
고 있는 실정임.

● 새만금 관광시대 일박으  
로 펜션투자시 광주 지역  
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  
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  
는 25%이상 보장되는  
물건은 최급

●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 
긴 방기루 태리스 12평  
(펜션부지, 스기미 시공)

##### ● 주인직거래 ●

꼭하심 분민전 회화오망

011-634-4114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

●